

Style 1 조선일보

SPRING/
SUMMER
2024



Infinite Creativity

크리스털 커팅 관련 기술력과 기계의 개발로 글로벌 브랜드가 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은 주얼리와 액세서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성과 창의성으로 끊임없이 나아간 열정 덕분에 있을 것이다. 1백29년 동안 꾸준히 전 세계인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1895년 브랜드를 창립한 다니엘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털 가공 기술은 현재의 스와로브스키로 이어진 혁신성의 시작이었다. 기술력과 디자인을 향한 그의 끈질긴 열정은 스와로브스키를 전 세계를 선도하는 주얼리 브랜드로 자리 잡게 했으며, 오늘날 스와로브스키 가문은 헤리티지를 계승하며 전 세계 여성을 위한 특별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위대한 장인 정신의 시작

스와로브스키는 1895년 오스트리아에서 다니엘 스와로브스키(Daniel Swarovski)가 창립한 브랜드다. 1891년부터 그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이었다. 1892년 보석을 완벽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고 특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시작으로 당시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프란츠 바이스(Franz Weis)와 아르만 코스만(Armand Kosmann)과 함께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바텐스(Wattens)에 회사를 세운다. 이후 본격적으로 크리스털 가공에 관련된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이를 통해 발명한 크리스털 커팅 기계는 생산 공정을 기존 수공업 체제에서 기계화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크리스털을 보다 더욱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훗날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털 가공과 커팅 기술의 장인성과 노하우를 완성해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 잡게 하는 토대가 된다.

창립 이후 무려 1백3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스와로브스키는 유례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바텐스 본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커팅과 절러, 크기에 대해 연구하며 크리스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여기에 크리스털 특유의 반짝임을 극대화하고 정교한 세련미를 선사하기 위한 비드파베베셀 프롱 세팅 등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아끼지 않는다. 스와로브스키는 크리스털 제작 시 높은 퀄리티 역시 놓치지 않는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세팅은 수작업에 견주는 고도로 정밀한 포인트이지®(Pointiage®) 같은 독점 기술을 통해 구현된다. 연마 과정에서 특별한 노하우를 통해 탄생시킨 흠 없이 완벽한 깨끗함, 그리고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만의 독보적인 28면 커팅 기술과 14가지 스타일의 커팅법이 궁극의 광채를 만들어낸다. 디테일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기에 전 제품을 최고의 품질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문성은 최초의 디자인 스케치부터 최종 조립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끊임없는 혁신성과 창의성

스와로브스키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작은 크리스털 장식품부터 패션 제품에 이르기까지

1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 크리스털업계를 선도한다. 주요 품목인 액세서리, 주얼리뿐 아니라 홈 데코 아이템이 세계 주요 도시 및 패션 중심지에 위치한 약 3천5백 개의 스와로브스키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1920년대에는 특히 패션 분야에서 대량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을 사용함으로써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미국의 재즈 홀에서부터 파리의 오토 쿠투르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비즈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장식한 수많은 드레스가 패션계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1956년, 다니엘이 사망한 해에 스와로브스키는 커팅 크리스털의 광채에 무지갯빛을 더하는 오로라 보REALIS(Aurora Borealis) 마감 방식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65년부터는 켈스톤 사업을 시작해 1976년 인스브루크 동계 올림픽에서 기념품으로 상들에게 부품을 조화해 제작한 마우스 인형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완제품 상용화의 시작으로 오늘날의 스와로브스키 피겨린의 토대를 마련했다. 1980년대 런던 올드 본드 스트리트에 드디어 스와로브스키 첫 부티크가 오픈하면서 전 세계가 새로운 주얼리와 크리스털 피겨린



에 매혹되었다. 이때부터 스와로브스키는 매년 한정 상품으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는 피겨린 컬렉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수집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스와로브스키 수집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2007년에는 최첨단 디자인의 주얼리와 크리스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이탈리아에 스와로브스키를 기획했다. 이 컬렉션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며, 브랜드 고유의 세련된 세팅 기법과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더해 정교하고 우수한 퀄리티를 자랑한다. 이어 2008년 '크리스털 포레스트(Crystal Forest)'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 세계 부티크에 적용해 고객들에게 크리스털로 만든 동화 속 원더랜드에 초대된 느낌을 주며 스와로브스키의 대담성과 창의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했다. 이처럼 스와로브스키는 크리스털로 만든 다양한 주얼리 컬렉션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크리스털을 접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활용해 크리스털화했다. 액세서리, 크리스털 오브제, 홈 액세서리 디자인, 자동차까지 분야에 대한 경계 없이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기술력과 장인 정신에 기반한 자신감으로 도전하고 혁신하는 진정한 창의성을 보여준다.

창립 125주년, 새를 태어난 모두의 다이아몬드

2020년, 스와로브스키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했다. 브랜드 탄생 125주년을 맞이한 것.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와로브스키는 1백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척 정신과 트렌드를 이끄는 디자인, 독보적인 장인 정신이 결합된 작품을 선보여왔다. 세계적인 품질의 크리스털과 천연 켈스톤,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지르코니아, 주얼리, 액세서리, 크리스털 오브제, 홈 액세서리 디자인, 자동차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2020년에는 창립 125주년을 맞이하면서 담담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커다란 변화를 꾀했다. 그 시작은 브랜드 최초로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지오바나 엔겔베르트(Giovanna Engelbert)를 임명한 것



1 스와로브스키의 매트릭스 테니스(Matrix Tennis) 컬렉션. 2 스와로브스키 창업자 다니엘 스와로브스키. 3 오스트리아 바텐스(Wattens)에 위치한 스와로브스키 본사. 4 스와로브스키 2024 S/S 주얼리 컬렉션 캠페인 컷. 모델 이리나 샤이크(Irina Shayk). 5 스와로브스키 2024 S/S 주얼리 컬렉션 네트리스. 6 7 SCS 회원들 위한 한정 제품. 8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오바나 엔겔베르트.

이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글로벌 패션 매거진의 에디터로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와 함께했고, 현재도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브랜드 로고와 패키지부터 바꿨다. 이로써 1989년 탄생한 스와로브스키의 상징이자 로고인 스완 로고는 32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한층 단순하게 변모시키고자 날개의 그라데이션을 지우고 얼굴 부분을 간결하게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백조가 바라보는 방향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다. '상상력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겠다'라는 브랜드의 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로고 다음으로 그녀는 패키지에 주목했다. 크리스털을 상징하는 팔각형 박스를 만들고 거기에 다섯 가지 약센트 컬러를 입혔다. 그리고 각 컬러에 숨겨진 의미를 담아 스와로브스키가 의미 있는 산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꿨다. 이는 브랜드 DNA를 지키면서도 주얼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진화하는 세상을 위해 뛰어 들겠다는 포부를 여실히 드러낸다. 오랜 시간 에디터이자 인플루언서의 시각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접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 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컬렉션 역시 완전히 새로운 모던 크리스털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으로 탈바꿈했다. 이후 클래식하고 모던하면서도 세련되며, 크리스털이 지닌 근본적이면서도 기하학적 구조와 소재로 잠재력을 탐구하는 첫 번째 컬렉션 '컬렉션 원'을 시작으로 2021년 F/W 시즌에 맞추어 오스트리아의 근원이자 브랜드의 정신적 고향인 비엔나에서 영감을 받아 클립트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예술가를 추앙하는 '컬렉션 투'를 선보였다. 컬렉션 투의 비주얼로 브랜드 최초 트랜스젠더 모델을 기용한 것도 센세이셔널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스와로브스키의 창의성과 무한한 경계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6 러는 세심한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에 접근할 수 있고, 독창적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뜻깊다"고 전했다.

특별한 이를 위한 유니크한 피스

스와로브스키는 이러한 마니아들을 위해 스와로브스키만의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명 SCS(Swarovski Crystal Society)로 1987년부터 시작된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에뉴얼 에디션에 포함한 한정판 제품 수집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스와로브스키는 SCS 회원만을 위한 제작물과 기프트 및 추가 혜택을 제공해왔다. 2024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오바나 엔겔베르트는 이 SCS 에뉴얼 에디션과 함께 SCS 회원들을 위한 익스클루시브 프로덕트와 기프트를 공개한다. 올 크리스털로 만든 새 모티브, 오키드 페탈과 펜던트, 딱정벌레 모양의 크리스털 비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작년 12월에 오픈한 스와로브스키 도산파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5월 중 SCS 회원만을 위한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크리스털 디자이너 마틴 젠드론(Martin Zendron)과의 만남은 물론 럭셔리한 케이터링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 5월의 분, 스와로브스키 도산파크 플래그십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보자. 에디터 **성정민**





Marvelous World

1895년 창립된 이래로 새로운 커팅과 컬러, 디자인에 대한 끈질긴 열정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매일 크리스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스와로브스키. 압구정 도산공원 메인 스트리트에 하우스만의 풍부한 유산과 고유한 기술을 집약한 몰입형 공간, 스와로브스키 도산파크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크리스털 주얼리부터 크리에이티브 다이아몬드 컬렉션, 홈 인테리어 아이템에 이르기까지, 마치 크리스털 파라다이스에 온 듯하다.



채험형 럭셔리 공간
가장 먼저 스와로브스키 도산파크 플래그십 스토어 2층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중 최초로 국내 론칭한 스와로브스키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브 다이아몬드'를 만나볼 수 있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 생산한 다이아몬드로, 채굴 다이아몬드와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광학적 속성이 100% 동일하다. 이렇게 탄생한 다이아몬드가 스와로브스키만의 고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나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브 다이아몬드 컬렉션'으로 완성되었다. 또 이 공간에서는 하우스가 한정판으로 제작한 시리즈 작품인 크



리스털 미러이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아프리카 야생동물들의 신비한 풍경에서 영감 받아 메종의 아이코닉한 포인트이지®(Pointiage®) 기법을 사용해 크리스털을 수작업으로 세밀하게 완성했다. 제품을 더욱 편안하고 프라이빗하게 경험할 수 있는 VIP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다.

크리스털과 테이블웨어의 조우
1층에서는 세계적인 포슬린 장인 기업 로젠탈과 컬레베레 이션에 브랜드 컬러를 반영한 테이블웨어 컬렉션,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19세기 오스트리아 예술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하고 세련된 레트로 퓨처리즘

감성을 느껴볼 수 있고, 여기에 스와로브스키 특유의 모터브인 팔각형 실루엣을 손잡이와 아이템 전반에 녹여 모던하고 현대적인 터치를 더했다. 골드 컬러 테두리의 그래픽 장식을 더해 클래식한 감성을 배가하며, 리드에는 컬러 크리스털을 얹어 하우스의 아이코닉하면서도 럭셔리한 무드를 연출했다. 티, 머그, 에스프레소 등 5종류의 컵과 다섯 가지 사이즈의 플레이트, 그리고 커피포트와 화병 등 다양한 제품으로 컬렉션을 구성해 멋진 디너 홈 파티를 열 때 혹은 사랑하는 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위해서도 제격이다. 또 이곳 1층에는 테이블웨어인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 외에도 고급 크리스털로 완성한 주얼리와 워치, 그리고 홈 데코레이션 아이템까지 다채로운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1 더욱 프라이빗하게 스와로브스키 아이템을 경험할 수 있는 2층 VIP 공간. 2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브 다이아몬드 주얼리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 섹션. 3 크리스털을 활용해 정밀한 포인트이지 기법으로 완성한 미러이드 컬렉션. 4 크리스털로 완성한 주얼리와 워치, 그리고 액세서리, 테이블웨어를 진열한 1층의 모습. 5 비드한 그린과 핑크 컬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 6 (안방) 히어로 시리즈 컬렉션과 (스타워즈) 컬레베레 이션 아이템 섹션. 7 리브랜딩으로 재탄생한 현대의 스와로브스키 옥타곤 스와 로고가 한눈에 보이는 모습과 스와로브스키 컬렉션 및 협업 제품들. 8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가 돋보이는 인테리어의 카페 스와로브스키 매장 모습. 9 로젠탈 컬렉션 시그니처 메뉴 '카페 마리아 테레지아'.

하우스 탄생부터 히어로와의 만남까지
지상 1층 옆 계단으로 내려가면 '모두를 위한 다이아몬드'를 만들고자 했던 창립자 다니엘 스와로브스키가 현재의 스와로브스키 커팅 기술을 문서화한 최초의 자료부터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지하 1층 헤리티지 코너가 펼쳐진다. 지난 1백29년간 이어져온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초기 에탈바이스에서 재탄생한 현재의 스와로브스키 옥타곤 속 백조가 맞이해주는데, '상상력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겠다'는 브랜드 정신을 시각적으로 보



여준다. 그 옆 섹션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미키마우스, 영화 <스타워즈>,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히어로인 헐크, 아이언맨, 블랙 팬서 등을 모아둔 마블 컬렉션이 있는데, 하우스의 섬세한 세공 기술을 통해 다이내믹한 포즈를 반짝이는 수백 개의 파셋으로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마니아층이 두꺼워 특별한 기프트로도 제격이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컬레베레 이션을 선보이는 하우스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에서 첫선을 보이는 카페 스와로브스키
황금빛 찬란한 2층을 지나 올라서면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카페 스와로브스키가 있다. 브랜드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이 카페는 핑크빛 무드를 자랑하는데, 감싸안은

듯한 매장 구조와 넓은 창이 있어 포근하면서도 탁 트인 느낌을 준다. 여기에 백조가 연상되는 곡선 실루엣의 폭신한 핑크 컬러 디자인 소파까지 더해 편안한 분위기 속 차 한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스완라떼, 비너 멜랑주, 카페 마리아 테레지아 등 총 세 가지로 선보인다. 특히 카페 마리아 테레지아는 상큼한 오렌지 제스트와 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비엔나커피로 유명한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엔나 크림은 카페 스와로브스키에서 직접 황금 비율로 제조해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 더불어 다가올 여름에는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을 담은 듯한 슬러시인 주얼드 그라니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에디터 윤자경, 신정민**

주소 서울시강남구 언주로164길30
운영시간 11:00~21:00 문의 02-3445-0801



* special event *
DOSAN PARK FLAGSHIP STORE

방문하기만 해도 받아볼 수 있는 토트백부터 카페 음료 그리고 풍성한 구매 혜택까지, 오직 스타일 조산일보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해보세요.



the Art of Science

다이아몬드와 크리스탈에 대한 노하우를 증명해낸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Swarovski Created Diamonds, SCD)의 탄생, 그리고 앞으로 더욱 확장될 스와로브스키 다이아몬드 컬렉션.

최근 주얼리업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랩 그로운(lab-grown) 다이아몬드. 실험실에서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을 배양해 천연 다이아몬드를 완벽하게 복제함으로써 화학적, 물리적, 광학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분할 수 없는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 비용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기에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와로브스키는 최근 자체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생산에 성공하면서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Swarovski Created Diamonds, SCD) 컬렉션을 론칭했고,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서 모두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글로벌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에서 선보이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가기에 기술력과 진정성에 대한 믿음은 기본. 다이아몬드의 새 시장을 열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만나보자.

천연 다이아몬드와 같은 품질보증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은 고압 고온(HPHT)과 화학 기상 증착(CVD), 두 가지가 있다. 보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인공 다이아몬드는 주로 플라즈마(고체액체기체에 이은 제4의 물질로 매우 높은 온도의 에너지 상태를 의미)를 이용한 화학 기상 증착으로 생성한다.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에서 만든 용기에 메탄과 수소가스를 넣은 뒤 온도를 1,000℃ 이상으로 높이면 기체에서 탄소가 분리되는데, 탄소가 바다에 막을 형성하면서 겹겹이 쌓여 처음 용기에 넣었던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씨앗이 점점 커지는 원리다. 약 5백 시간이면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30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든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전문가조차 두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는 성분은 물론 경도나 굴절률 등이 완전히 똑같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컬렉션에 사용한 모든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 등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4C'라고도 불리는 기준은 컬러(color), 컷(cut), 캐럿(carat), 투명도(clarity)를 통해 스톤의 품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스와로브스키는 이미 크리스털 커팅에 대한 노하우와 장인 정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독립 기관으로 약 50년간 다이아몬드 등급을 평가해온 국제보석학연구소(IGI)의 품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스와로브스키의 CEO 알렉시스 나사드(Alexis Nasard)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미래의 다이아몬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스와로브스키의 전략 성장 카테고리를 대표한다"며 "IGI와의 파트너십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SCD)' 컬렉션에서 각 스톤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믿음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는 채굴된 다이아몬드와 100% 동일하다 할 수 있으며,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 방식뿐이라는 것. 이는 0.25캐럿 이상의 스와로브

1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디렉터 지오바나 앵겔버트가 디렉팅하여 탄생한 스와로브스키의 첫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컬렉션인 갤럭시 컬렉션의 메인 비주얼, 불꽃이 있는 하이퍼얼리 피스과 생생한 색감,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의 품질까지, 완성도 높은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보여준다. 2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2캐럿으로 완성한 갤럭시 네크리스 5백50만원, 3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5.5캐럿으로 완성한 스타트 다이아몬드 1천2백만원, 4 갤럭시 태스 브레이슬릿 M.40.0. 18K 화이트 골드 메탈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5캐럿으로 완성했다. 9백50만원, 5 갤럭시 컬렉션 링 연줄컷, 9캐럿부터 5캐럿부터 5백만원, 2백50만원, 1백30만원.



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모두에 새겨진 레이저 각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와로브스키가 만든 다이아몬드라는 의미인 동시에 천연 다이아몬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은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두를 위한 다이아몬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채굴 다이아몬드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톤의 품질, 사이즈, 중량에 따라 채굴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가격이 책정되지만 같거나 더 높은 품질과 큰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환경적이나 윤리적으로도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채굴 다이아몬드에 비해 훨씬 큰 이점을 제공한다. 채굴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3~4km 깊이로 땅을 파헤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될 뿐 아니라 흙을 씻어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천연 다이아몬드의 경우 다이아몬드 1캐럿을 채굴하는 데 500L의 물이 필요하며, 채굴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 희귀한 다이아몬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이 모든 인권침해나 노동력 착취로부터 자유롭다. 특히 스와로브스키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려한다.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며, 100% 재활용 골드로 제작해 주얼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귀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스와로브스키가 이전부터 세운 비전과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창립자 다니엘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스와로브스키를 창립했을 때부터 합리적 가격의 크리스털을 통해 '모두를 위한 다이아몬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현재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로 이어진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개발함으로써 더 합리적 가격,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갤럭시(Galaxy) 컬렉션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로 진출하며 카테고리 확장을 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오바나 앵겔버트는 자신이 디자인한 최초의 파인 주얼리 컬렉션인 '갤럭시(Galaxy)'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 컬렉션은 우주의 탄생에서 영감을 받아 네크리스, 링, 이어링, 브레이슬릿까지 19개 제품으로 선보이며, 빛을 포착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한 눈부신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 돋보인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전 세계 플래그십 스토어와 주요 국가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스와로브스키 도넬라코 플래그십 스토어와 스와로브스키 공식 온라인몰(Swarovski.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5-0801 에디터 **성정민**



Modern Crystal Table

크리스탈 제품으로 현대적이면서도 모던한 감성을 놓치지 않는 스와로브스키와 세계적인 포슬린 명품 브랜드 로젠탈이 만나 전개하는 다채로운 테이블웨어 컬렉션, 스와로브스키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을 소개한다.



1 밝은 핑크 컬러의 스와로브스키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 2 라이트 토포즈 컬러의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파우진. 3 옐로 컬러의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 4 핑크 컬러의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 화병과 티모트, 찻잔 세트.



매 시즌 클래식하면서도 동시대적인 디자인과 독보적인 크리스탈 커팅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는 모던 크리스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와로브스키(Swarovski)는 주얼리뿐 아니라 홈 데코를 위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스와로브스키만의 반짝임과 크리스탈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하기 좋은 제품들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삼세인 잔부터 크리스탈 와인 잔에 이르기까지, 스와로브스키만의 현대적인 홈 데코 컬렉션은 멋진 디너 홈 파티를 개최할 때도, 특별한 선물을 위해서도 제격이다. 스와로브스키는 대표 제품인 크리스탈에 잘 어울릴 만한 테이블웨어를 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1879년 창립한 독일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로젠탈(Rosenthal)과 컬래버레이션해 테이블웨어 컬렉션,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을 선보였다. 로젠탈은 1백45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 전통 도자기 회사로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과 앞선 감각을 지니고 있기에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스와로브스키와 결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크리스탈과 포슬린에 일가견이 있는 이 두 장인이 만나 탄생시킨 스와로브스키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은 브랜드 컬러를 반영한 색감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현대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뿐 아니라 각각의 제품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더해 음식을 담은 훌륭한 테이블웨어로서도 손색없는 제품력을 갖췄다.

역사적인 만남으로 완성된 디자인

스와로브스키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은 로젠탈의 장인 정신과 스와로브스키만의 다채로운 컷 디테일로 두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세밀하게 담았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오바나 앙겔베르트는 로젠탈 크리에이티브 센터와 긴밀하게 협업해 20세기의 오스트리아 디자인 운동으로 창설된 빈 공방(Wiener Werkstätte)에서 만든 그래픽 아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디자인적으로 숙련된 솜씨와 최고의 정밀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두 역사적인 브랜드의 협업이 아니면 불가능한 디자인이다. 각각의 그릇과 티포트 등에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시그니처인 팔각형 모티프를 곳곳에 담았고 빛나는 크리스탈 리드, 중앙에 스완을 각인한 스텝 프, 패턴 디자인의 핵심인 아이코닉한 옥타곤 세이프 등을 통해 스와로브스키의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표현했다. 무엇보다 스와로브스키가 리브랜딩하면서 택한 강렬한 컬러 배리어이션이 돋보인다. 특히 유쾌하고 생기 넘치는 캔디 컬러에서 착안한 컬러 팔레트를 선보인다. 핑크와 베리도트, 존웰 옐로, 라이트 토포즈, 아주르 블루와 아라마린, 핑크와 로잘린 등의 컬러에 매혹적인 금색 테두리로 장식한 독특한 그래픽 디자인은 그 자체로 테이블 위 작품이 되며,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는 모던한 테이블에 강렬하고 인상적인 포인트가 되어 행복한 식사와 파티

에 걸맞게 테이블을 세팅하기에 충분하다. 다양한 사이즈의 플레이트와 커피포트, 티 컵 및 에스프레소 컵 세트까지 풀 다이닝 컬렉션 제품뿐 아니라 볼, 꽃병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상품으로 구성했으며,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주얼리 또는 홈 제품을 함께 장식해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한 다이닝을 즐길 수 있다. **에디터 생영민**



대형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총 15.71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걸럭시 브로치 (45,800,000원) 스와로브스키.

A Graceful Moment
 모든 환희의 순간과 함께할, 고아한 광채를 담은 스와로브스키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hyun jin

총 27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심플한 무드의 이터널티 후프 이어링 5백만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총 47.27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걸럭시 태니스 네크리스 8천3백만원, 각각 다른 세이프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로 연결해 유니크한 멋을 다한 걸럭시 태니스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1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걸럭시 익스드림 2백50만원, 오픈 형태의 특별한 디자인이 특징인 이터널티 오픈 밴드 링 1백30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스타일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갤럭시 이어링
 1천2백만원, 다양한 사이즈의 라운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10개가 가운데 1개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디자인으로 광채를 배가하는 총 2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갤럭시 네크리스
 5백80만원, 별 무리처럼 반짝이는 광채를 선사하는
 총 2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갤럭시 링 5백만원, 총 0.75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총총하게 파베 세팅해
 완성한 이터너리 링 1백90만원 모두 스위로브스키.



별자리는 이렇듯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총 1.2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갤럭시 이어링 2백90만원, 가운데 1개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중심으로 작은 8개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그윽의 반짝임을 부여한
 갤럭시 네크리스 2백90만원, 총 0.9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무인 시공 2열 완성한 갤럭시 네크리스 2백90만원, 총 1캐럿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갤럭시 마스드 링 2백90만원 모두 스위로브스키.



swarovski.com

#SwarovskiHyperbola



Irina Shayk by Steven Meisel

SWAROVSKI